
한영희와 고고부, 남겨진 기억의 방명록

김 재 홍*

목 차

- I. 머리말
 - II. 고고부장으로서의 한영희
 - III. 발굴조사의 지향점
 - IV. 자료 정리와 보고서 간행
 - V. 특별전시
 - VI. 이전 개관 전시
 - VII. 맺음말
-

* 국민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한영희 고고부장을 중심으로 고고부가 수행하였던 학술적인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국립박물관 연보』, 도록, 보고서 등 각종 자료와 필자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시절 고고부의 사업은 크게 발굴조사, 자료 정리, 특별전시, 이전 개관 전시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사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전 부서원이 “하나의 고고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문에서 발굴조사자와 도록 집필자를 최대한 밝히려고 하였으나 당시 책자의 표지에는 집필자의 이름이 없거나 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고고부 사업으로 이루어진 원고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고부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예연구사의 원고를 학예연구관이 교정하고 부장인 자신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원고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간결하지만 명확한 패널과 도록 원고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6년간 고고부를 이해하는 수식어는 우리 선사문화의 원류를 해명하는 문제였다. 남한강유역 선사문화 조사, 암사동 유적 조사 및 정리, 몽골 유적 조사, 알타이문명전 등은 일관되게 우리 선사문화의 기원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한영희 고고부장의 학문적 소신이 묻어나는 작업이었으며, 개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고부의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유물인 미공개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를 확대하여 연차 사업으로 정착시켜 지속성을 가지게 하였다. 당시에는 창원 다호리 유적, 부산 동삼동 패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후 일제강점기 자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유적을 발굴하고 출토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고고부의 지향점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단지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의 고고부만의 화두가 아니라 국립박물관 고고과 및 고고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기도 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지향점을 한영희 고고부장은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국립박물관인, 고고부 맨으로 자리매김하며 학문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고부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Ⅰ 주제어 Ⅰ

한영희, 고고부, 선사문화의 원류, 암사동 유적, 신석기 문화

I. 머리말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자료 조사,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을 들 수 있다(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학예연구원은 고고, 미술, 역사 등 자료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이를 연구하여 그 실체를 해명한다. 이를 전시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구계열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고부, 미술부, 역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를 거친 유물은 수장고 등에서 보관하며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유물관리부와 보존과학부에서 이를 수행한다. 최근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가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교육이다. 박물관 교육은 학교 교육과 달리 박물관이라는 현장에서 유물이나 이를 활용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국립박물관의 역할 중에서 보존과학과 박물관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20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박물관은 조사와 전시를 주로 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연구와 전시 부서인 고고부와 미술부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고고, 미술 분야의 연구 성과는 전시로 연결되었다. 두 부서는 연구 성과를 전시로 환원하여 대중과 소통하였다. 고고부는 1990년대에 “가야(1991년)”, “청동기문화(1992년)” 등을 기획하였고 미술부는 “삼국시대불교조각(1990년)”, “불사리장엄(1991년)” 등을 전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박물관의 조사와 연구가 전시로 활발하게 구현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는 고고학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고고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고부 학예연구사는 새로운 분야의 조사를 수행하여 연구로 연결하고 이를 전시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고고부의 일원으로 성장하였고, 한국 고고학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총괄하는 고고부장은 고고학 출신 연구자가 박물관에서 가장 가고 싶은 자리에 위치하였다. 20여년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익힌 조사, 연구, 전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망되는 자리였다. 그 자리의 중요성만큼 역할의 중압감은 상당하였다. 새로운 조사,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전시로 재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고부장직에 1993년 10월부터 1999년 11월 25일까지 만 6년간 재임한 분이 한영희 선생님(이하 존칭 생략)이다. 이제 그 존함만 부를 수 있으나 한때는

매일 고고부 테이블에서 마주하면서 답소를 나누었던 다정한 분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는 롤 모델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사소한 주변사도 얘기하는 친근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 분이다. 한 개인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기는 곤란하나 그가 고고부장으로 재직할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한 개인사를 넘어 박물관 고고부의 기억을 소생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Ⅱ. 고고부장으로서의 한영희

필자는 1993년 10월 22일(금)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학예연구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발령장을 받자마자 당시 고고부장인 한영희에게 특별전시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오는 25일(월)이 “선·원사 토기” 특별전 개막식이 열려 고고부는 전시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다. 첫 인사를 전시실에서, 그것도 작업복을 입고 전시 준비를 하시는 고고부장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평생의 유일한 경험이었다. 전시가 막바지였으므로 고고부장의 지시에 따라 유물 받침대를 찾아주었던 것이 엇그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그것이 나의 첫 업무였던 것이다. 첫 업무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으며, 다음날 다시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었다. 첫 업무가 끝나고 새벽 24시간 편의점에서 고고부 선배인 송의정, 윤광진, 정성희, 함순섭 선배가 베풀어 주신 환영의 맥주 한 잔이 지금도 그립게 느껴진다. 이렇게 고고부장 한영희와 첫 대면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 고고부장도 얼마 전에 국립전주박물관장에서 고고부장으로 오셔서 거의 동일한 시점인 10월에 고고부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필자가 한영희 고고부장과의 첫 대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한 것은 그 분의 성실성을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굉장히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별 전시를 하는 기간에는 부서원들과 같이 저녁 늦게까지 전시를 진행하였다. 지시만 하고 사라지는 고고부장이 아니라 부서원과 함께 움직이는 고고부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특별전시는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고고부의 가장 큰 전시 업무였다. 그해 한 해 고고부의 연구 성과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학예연구사의 입장에서는 낮에 전시 패널리나 도록 원고를 작성하고, 저녁에 유물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한부장은 매일 10자루 정도의 연필을 깎아 놓으시고 학예연구사의 원고를 일일이

교정하시고 돌려보내 주셨다. 내 기억에 한 자도 다시 고칠 것이 없는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원고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간결하되 강렬한 내용의 패널이나 도록 원고를 쓰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저녁에는 전시실에서 부서원과 함께 전시를 수행하셨다. 전시를 하시면서 작은 부분까지 알려주시는 친절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특별전시 기간 내내 부서원과 함께하는 성실한 고고부장으로 기억되는 이유였던 것이다.

또 다른 성실이라는 측면에서 한부장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였다. 필자는 박물관 생활 초기에 7시에 출근하였다. 공무원 통근버스가 일찍 도착하기도 하였으나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으므로 박물관 매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오전 7시에 일찍 와서 무엇을 할 줄 몰라 책을 읽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먼저 출근하신 한영희 고고부장을 발견하고 적잖이 놀란 적이 있다. 어느 날 고고부장님이 전시실에서 유물을 관찰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 출근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신 한영희 고고부장에게 지금도 감사드린다. 평생 유물을 보면서 연구하신 분이 고고부장이 되어서도 틈틈이 전시실의 유물을 보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를 본 필자도 이른 아침 전시실 유물을 체크하면서 나름의 고고학 공부를 하였다. 필자에게는 고고부장이신 한영희 선생님께서 전시실을 돌아보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선배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 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김재홍 2011: 9).

한영희 고고부장은 다정다감하게 답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였다. 지금은 고고부 부서원 개개인의 공간이 칸막이로 나누어져 독자적인 영역이 확보되었으나, 1999년대는 가운데 메인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 보면 모든 부서원의 업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독자적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은 듯하지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테이블에 모여 의논이나 협의하기가 편리하였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고고부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하였다. 특정한 주제를 가진 회의도 있었으나 평소에는 차를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하는 자리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효과는 부서원이 공동 관심사를 얘기하고 업무 협조로 연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날그날 전국의 발굴조사에 관련된 최신 정보가 교환되었고 새로운 연구 경향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부장은 이런 자리를 통하여 개인적인 관심사를 체크하시거나 직원의 애로사항도 꼼꼼히 챙

기셨다. 지금도 고고부의 메인 테이블이 그리운 것은 단지 한 잔의 커피 맛과 담소만은 아니었다. 커피와 담소는 어디든 있는 것이지만 한영희 고고부장을 통한 편안한 담소와 네트워크망의 이해는 그 시절, 그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전국의 고고학 발굴조사와 최신 연구 성과를 듣는 것은 덤이었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고고학적인 지견과 박물관의 경험을 부서원과 공유하신 분이였다. 1996년 박물관 이전 개관을 준비하면서 한영희 고고부장과 전국 대학 박물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기존 총독부청사 건물에 있었던 박물관을 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고부가 새로운 유물을 전시하고자 구상하면서 기획한 출장이었다. 한부장은 여러 대학 박물관을 다니시면서 연구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전시실의 유물을 체크하면서 유물을 관찰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다. 구석기부터 통일신라까지 다양한 유적과 유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때 필자로서는 고고학 자료를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다. 필자가 대학 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된 철기 유물에 관심을 보이자 출장에서 돌아온 즉시, 필자를 불러 철기 제작 관련 책자를 주면서 격려해 주셨다. 이 한 권의 책은 필자가 철제 농구로 논문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부서원이 글을 쓰게 하기 위해 학예연구사에게 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 주었다. 평소 학예연구사는 글을 쓰는 훈련을 통해 연구자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 주시고 연구 성과를 원고화하는 것을 중요시하셨다. 패널이나 도록의 원고를 작성할 때에 일반 관람객에게 유물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의 힘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학예연구사의 전공에 맞추어 원고를 쓰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교정을 보시면서 원고를 다듬어 주셨다. 교정지를 보면서 각자의 글을 다시 들추어 보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가 학예연구사 이름으로 활자화되는 과정을 통해 학예연구사가 자신의 분야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학예연구사가 대학의 교수로, 지방 국립박물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영희 고고부장의 원고 교정 덕분일 것이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자상하고 꼼꼼하게 부서원을 챙기는 분이였다. 한 번은 한영희 고고부장이 중국 요령성에 교류 협력차 출장을 가시게 되었다. 출장 며칠 후 돌아오시는 길에 고고부로 전화를 하셨다. 전화를 받은 정성희 선생에게 부서원의 출생 띠를 물어 보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적어 보냈다. 그런데 돌아오시는 출장 보파리에서 각자의 12간지가 조각된 도장을 선물 받고 감격했던 기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필자는 가장 아끼는 도장으로 활용하고 있

다. 세월이 흘러 도장의 귀퉁이가 조금 깨어지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20여년 잘 사용하고 있다. 한영희 고고부장의 마음 씀씀이를 내 마음 한 편에 간직하면서이다.

Ⅲ. 발굴조사의 지향점

국립박물관은 1946년 개관할 시점부터 한국 문화를 해명하고 전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첫 고고학 조사가 호우총 발굴조사이다. 호우총 조사는 국립박물관이 유적과 유물의 조사와 전시를 위주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을 중시하는 조사 연구의 풍토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도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현장 조사는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이를 기초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사 방법을 훈련한 연구자를 양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고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고고부가 있었다. 고고학을 전공하거나 고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는 고고부에서 근무하였다는 자체가 고고학적인 자료 방법을 익혔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1950~60년대 국립박물관 고고과(부)는 청동기시대의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는 석기와 금속기가 함께 사용되어 사회발전이 늦었다는 금속병용기시대를 주장하였다. 광복 이후 남북의 고고학계는 청동기시대의 개시 연대와 문화상을 해명하여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립박물관도 청동기시대 고인돌과 집자리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가 김재원·윤무병에 의해 『한국지석묘연구』(1968년)로 간행되었다. 1960년대 한국 지석묘 연구를 마무리한 고고부는 1970~80년대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발굴조사와 연구에 도전하였다. 신석기문화의 해명을 위하여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을 발굴조사하여 중앙 화덕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석기 주거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청동기시대 무덤인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등을 발굴 조사하여 청동기문화의 독자성을 조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규명하기 위해 부여 송국리 등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함께 원삼국시대 문화를 해명하기 위

해 춘천 중도를 발굴조사하여 중도문화를 제창하기도 하였으며, 창원 다호리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원삼국시대의 개시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영희 고고부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발굴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고고부 발굴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국립박물관 발굴조사는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양상을 밝히는 부분이었다. 남이 시도하지 않은 유적을 찾아 한 지역을 몇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 제기 중심의 발굴조사를 시도하였다. 이즈음 1990년대부터 택지나 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대규모 발굴이 시작되었다. 넓은 지역을 단기간에 발굴조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이지만 발굴 조사의 성과가 바로 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로 전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국립박물관 발굴조사는 먼저 주제를 설정한 이후 지표조사를 통하여 특정 지역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설정한 주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고고부의 발굴조사는 몇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한국 고고학사에서 의미를 가지는 원삼국 시대 문화상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1990년대 초에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고고부장 이견무)는 원삼국시대 문화의 해명을 시도하였다. 마한 문화의 해명을 위하여 4차에 걸쳐 천안 청당동 분묘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마한 주구묘를 처음으로 찾아 마한 분구묘 연구의 돌파구를 제시하였다. 이후 마한지역에 분포하는 원삼국시대 무덤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창원 다호리 유적을 발굴조사하여 원삼국시대의 개시 문제와 변한 문화의 연구를 촉발시켰다. 한영희 고고부장이 취임하고도 원삼국 문화의 해명을 위한 발굴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천안 청당동 유적은 1994.4.18~5.10.까지 5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I 단계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발굴조사는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유적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미진한 유구를 발굴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93년에 이루어진 천안 청당동 유적 4차 발굴조사보고서는 그해 12월에 간행되었고(한영희·함순섭 1993), 1994년의 5차 발굴조사보고서는 그해 12월에 발간되었다(함순섭·김재홍 1995). 청당동 유적 발굴조사는 5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발굴조사한 그해 12월에 발굴조사보고서를 간행하여 자료를 책자의 형태로 공개하였다. 또한 I 단계 종합 보고서를 통해 5차에 걸친 유적을 논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학계에 기여하였다. 이후 청당동 유형의 주구묘가 충청도 지역

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되어 마한문화와 분묘 연구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

구제 발굴조사의 형태이지만 창원 다호리 유적에 대한 조사도 지속되었다. 1997.7.1.~1998.2.16.까지 창원 다호리 유적을 발굴조사하여 삼국시대 다호리 지역의 분묘자료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호리 유적은 원삼국시대 무덤을 위주로 주목받았으나 삼국시대 6세기까지 분묘유적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원래 원삼국시대 목관묘나 목곽묘의 발굴조사를 염두에 두었으나 예상하지 않은 성과를 일구었던 것이다(홍진근 외 2001).

한영희 고고부장이 새로이 주목하였던 주제는 선사시대 주거문화의 양상이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안성천·아산만 일대 선사유적을 지표 조사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로 간행하였다(한영희·한봉규 1995a). 이를 토대로 그해 1994.10.4.~10.24.까지 아산 신달리 유적을 조사하여 주거지 유적임을 확인하였다(한영희·한봉규 1995b). 신달리 유적은 청동기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아산 남성리 유적과 약 2km정도 떨어져 있는 구릉지에 위치하였다. 이 유적은 중부지역 선사문화의 형성과 전파를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달리 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으나 상부가 삭평되고 바닥층만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조사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선사유적 조사와 관련하여 1998.4.15.~6.13.까지 암사동 유적 전시관 신축에 앞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주거지 3기, 불명유구 1기, 불명구덩이 3기 등 신석기 생활유적에서 토기와 석기 등을 수습하였다. 이 조사 성과는 『암사동 II』로 간행되었는데(국립중앙박물관 1999a), 이전에 간행한 암사동 보고서의 연속선상에서 발간되었다. 또한, 1999.9.1.~10.29.까지 서울 암사초등학교 건립부지를 시굴조사하기도 하였다. 국립박물관이 조사한 암사동 주변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토기와 석기류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지표조사를 통하여 남한강유역을 대상지역으로 발굴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여주 혼암리 등 중요한 선사 주거지 유적이 분포한 남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여주 연양리 일대의 유적을 조사하였다. 발굴조사는 1995년과 1997.3.24.~5.12.까지 2차례 실시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주거지 6기와 제철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8a). 출토된 중도식토기와 부석식 노지 등으로 인해 원삼국시대 중도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사진 1. 여주 연양리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어서 남한강 유역의 삼국시대 백제 분묘 유적인 원주 법천리 고분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정 시기를 한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지역인 남한강 유역의 유적을 시기별로 검토하기 위한 발굴조사였다. 그 첫발이 한영희 고고부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제1차 발굴조사는 1999.5.3.~6.30.까지 실시되었고 백제 초기 석실묘를 확인하여 5세기 백제 한성기 고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0).

고고부가 추진한 국내 발굴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대학 박물관의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주거지 등 생활유적과 고분 등 분묘유적에 대한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 등 장기간 발굴조사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고고부의 발굴조사는 2개월 정도의 기간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시간과 지역을 확장하기 곤란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 성과가 가장 미진하고 필요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해에 걸쳐 한정된 지역을 단기간에 발굴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에는 원삼

국의 개시 문제, 선사시대 주거지, 남한강 유역의 유적 등 주제와 지역을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선사시대 생활유적의 발굴조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우리 선사문화를 현재 우리 문화와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한영희 고고부장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논문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한영희 1995).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고고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한국 선사문화의 해명이 국내 조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 선사문화와 관련하여 요령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지역에 관심을 가져 조사를 위한 초석으로 요령성박물관과 인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때 요령성박물관 관장 왕면후(王綿厚)와 학예연구사 박문영(朴文英)을 초대하여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이후 그 첫 사업으로 요령성박물관의 보존과학자를 초청하여 2개월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초청은 고고부가 하였으나 연수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보존과학실에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고고부에서 요령성박물관의 고고학자를 초청하기 이전에 서로 간에 학문적 견해 차이가 없는 보존과학분야의 교류를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국립박물관은 당시 중국 소재 고구려 고고유적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으로 인해 고고학 연구자의 인적 교류를 서서히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요령성박물관의 인적 교류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고고부는 중국 만주지역의 조사를 위한 인적 교류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선사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고고부에서 주목한 지역은 몽골이었다. 몽골은 구석기 유적부터 역사시대 유적까지 세계고고학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었으며, 유적의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고부의 몽골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당시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의 고고학적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조사가 필요하였다. 1997. 7.15.~7.25.까지 몽골 유적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다. 짧은 조사기간이지만 향후 조사를 위한 시굴 및 지표조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사진 2. 몽골 유적 사전 조사 광경

사전 조사 1년 후인 1998.7.2.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동북아시아지역 유적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한·몽 공동학술조사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몽골 문화유적에 대한 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 유물을 대여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고고부는 앞으로 4년 동안 몽골지역에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기간은 이후 갱신되어 현재도 고고부는 몽골 유적 발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된 후에 몽골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8.7.14.~8.14.와 1999.7.6.~8.6.의 기간에 실시되었다. 몽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우리 선사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해 기획한 동북아시아지역 유적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조사는 몽골 동북지역인 헨타이아йма크 우글룩칭골 지역과 듀브아이막 문곤모리트지역의 문화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얻은 성과는 발굴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몽골조사를 알리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9b).

몽골 발굴조사는 한영희 고고부장의 학문적인 신념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평소 한국 선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 기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사문화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에 시각을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동북아시아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장 만주지역의 선사문화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몽골로 눈을 돌려 조사를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영희 고고부장의 신념과 추진력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IV. 자료 정리와 보고서 간행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자료조사실에는 광복 이후 국립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유물이 보관상자에 담겨 격납고에 쌓여 있었다. 발굴조사 시에 보관한 상태 그대로 있던 상자에는 발굴시기와 발굴지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신문지로 싸인 자료를 통해 조사 일자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자료조사실의 도면함과 서랍장에는 발굴조사 일지, 도면, 사진 등 발굴조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발굴조사 이후 될 수 있으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보관 중인 유물과 자료는 매년 보고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어 책자의 형태로 일반인에 공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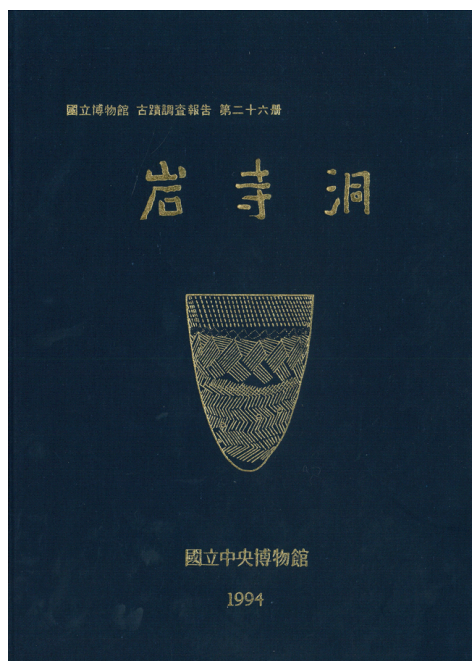


사진 3. 암사동 발굴조사 보고서

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에도 이전 발굴조사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정리 자료를 보고서로 간행하는 사업은 학술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최근 고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로 간행된 유적은 대부분 이전의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역점을 둔 사업은 선사시대의 유적과 남해안 생활유적인 패총의 정리 사업이다. 이중에서도 신석기시대 대표 유적인 암사동 선사유적의 정리와 보

고서 작업은 1994년과 95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간의 사업이었다. 암사동 신석기 유적 조사 보고서는 한영희 고고부장의 전공이기도 하고 선사문화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전 부서의 역량을 동원하여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당시 보고된 것은 1975년에 실시한 4차 조사분으로, 신석기 주거지 11기와 적석유구, 삼국시대 옹관묘 2기 등이 보고되었으며, 트렌치 출토품과 참고품은 별책으로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신석기시대 전공자인 정성희의 주도로 간행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4, 1995a).

다른 한 축의 보고서 작업은 남해안 패총의 보고였다. 양산 다방리 패총은 양산 부부총과 더불어 양산을 대표하는 생활유적이다. 양산 지역 고대인의 생활상과 방 어시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윤무병 외 1993). 그리고, 1996년 1년간 고 고부가 수행한 보고서는 국립박물관이 1967년과 68년에 조사한 동래 낙민동 패총 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98b). 토기·골각기·동물유체 등 많은 유물이 정리되었으며, 일본계 토기와 복골·소형토기 등 제사 관련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전 고고부 발굴조사 유적과 유물의 정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라는 주제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주로 보고서를 간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지속되는 성격은 아니었다. 이에 한영희 고고부장은 기존 고고부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유물과 자료를 정리하는 “미공개자료조사”를 단일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 다호리 유적 발굴 유 물과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유물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간행하고자 하였다. 한영희 고고부장 생전에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창원 다호리 유적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약 보고서는 매년 간행되었으나 종합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특히 다호리 1호분에서 출토된 목관과 칠기는 20여년 간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장기적 인 관점에서 보고서의 간행이 추진되었다. 종합보고서에 대한 기획은 1997년에 세워져 2012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가 1~7차에 걸쳐 발굴조사한 것을 보고서로 간행하였다.

미공개자료조사의 본격적인 추진은 1999년 부산 동삼동패총 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유물정리는 1999.1.~12.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몇 년간에 걸쳐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간행되었다(오세연 외 2002).

고고부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총독부박물관 발굴조사 및 문화재 관리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목록”으로 간행하였다(한영희·김재홍 1996).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발굴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학예연구사 1인이 연세대 사학과 한국사 및 일본사 전공 대학원생 2인과 더불어 1달간 작업하여 완성하였다. 짧은 작업 기간이지만 관련 문서를 목차 위주로 정리하여 향후 고고자료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찾고자 하는 유적이나 유물을 확인하고 원문서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 목록집이 간행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이나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나 특별전시를 기획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이 자료집은 100부만 간행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고고부·유물관리부 자료실, 지방 국립박물관 도서관 등 관련기관 도서관을 위주로 배포하고 개인에게는 열람만 허가하였다. 이 목록 자료집이 간행되고 나서 유물관리부에 보관되고 있던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화재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정리하여 두 번째 목록집이 유물관리부에서 간행되었다(박영복 외 1997). 두 번째 자료집은 고고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기록보다는 불교유적이나 건축문화재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V. 특별전시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특별전시는 새로운 박물관 이전 개관이라는 대규모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개관년인 199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박물관 특별전시는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제를 통해 기획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시기 고고부의 특별전시는 몇 가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한국 고대 문화의 기초자료를 전시하여 고고학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고고학의 형식분류와 편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토기를 대상으로 2차례 종합적인 전시가 이루어졌다. 한영희 고고부장이 취임하는 해인 1993.10.26.~12.19.까지 신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걸친 시기의 토기를 조명한 “한국의 선·원사토기”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토기는 한영희 고고부장의 전공이기도 하여 상당히 정성을 들인 전시였다. 물론 전시 기획과 유물 선정은 이미 전 고고부장이신 이진무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어받아 전시가 이루어졌다. 화려한 유물의 전시는 아니었으나 고고학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토기를 대상으로 한 전시인

만큼 연구자 사이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전시로 기억된다. 선·원사토기를 신석기, 청동기·초기철기, 원삼국시대로 나누고 지역차와 형식별로 전시하여 시기별,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수집한 북한지역 출토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등을 새로이 선보여 각광을 받았다. 한국의 선·원사토기 특별전 4년 이후 1997.12.1.~1998.2.1.에 후속 전시인 “한국고대의 토기-흙, 예술, 삶과 죽음”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가야 토기를 대상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부제인 “흙, 예술, 삶과 죽음”은 당시 관장이셨던 정양모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도자기 전공자이자 최고의 심미안을 가진 노학자의 품위가 드러나는 주제어로 평가받은 기억이 난다.

두 번의 토기 특별 전시를 통하여 고고부는 한국 선사와 고대의 토기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시대에 대한 나름의 고고학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소박하면서도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한영희 고고부장의 평소 지견과도 맞닿아 있다.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부서 전체의 수준이 올라야 박물관 고고부가 성장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두 번의 토기 특별 전시를 거치면서 나름의 고고학 형식분류와 편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직도 그 때 한영희 고고부장의 지도로 전시 기획을 배우면서 고고학 공부를 하였다고 자부한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고고부 사업 방향의 하나는 한국 문화의 기원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선사시대 생활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기원지를 해명하기 위해 중국 만주 지역과 몽골지역에 주목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기획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 기원지의 하나로 주목받는 알타이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특별전시를 기획하였다. 알타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쿠르간에서 도굴이 되지 않은 무덤이 발굴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 쿠르간에서 발견된 원형 그대로 보존된 미라는 “얼음공주”라고 명명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우리 고대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전시를 추진하였으며, 알타이 지역 고대부터 근대 문화까지 전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여 이 지역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알타이문명전은 1995.4.11.~7.2.에 전시되어 우리 고대 문화와의 관련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와 문화의 원류를 조명하기 위해 특별전을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당시 고고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해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전 고고부에서 전시한 “스키타이황금(1991년)” 특별전과 더불어 유목 민

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특별 전시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유적조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사진 4. 특별전시실의 한영희 선생(특별전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개막식)

두 번에 걸친 선사와 고대의 토기를 정리한 고고부는 특정 유물의 전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특정 주제를 선정하는 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전 고고부 전시는 청동기문화, 선·원사토기, 고대 토기 등 특정 유물과 문화를 주제로 하였으나 새로이 주제 의식을 가진 전시를 기획하였다. 물론 청동기문화 등의 전시가 해당 시기 문화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가지지만 특정 주제를 추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이 “고고유물로 본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이라는 특별전시로서 1998.10.20.~1998.12.6.에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순회전시로 기획되어 1998.12.20.~1.31.에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열렸고, 다시 1999.2.9.~3.21.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소위 원삼국시대를 대상으로 한국 고대 국가가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한 전시로 기획되었다. 전시 기획은 한영희 고고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전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필자의 논문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김재홍 1996).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고고학 자료를 시기별, 지역별로 정리하여 고대국가의 지역별 성장과정에 주목하였다.

1999년에는 백제 특별전이 열렸다(한영희·김길식 1999). 백제의 형성부터 성장, 발전, 멸망의 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보여주고, 대외교류, 귀족문화, 정신세계, 백제인의 얼굴 등 주제로 본 백제를 기획하였다.

필자가 처음 고고부에 발령받았을 때 전시를 기획한 것이 작은 전시인 포스터전과 움직이는 박물관의 ‘선사인의 돌문화’였다. 필자가 고고부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할 무렵 한영희 고고부장은 작은 전시이지만 전시 경험도 쌓고 박물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하라며 위의 두 전시를 맡겼다. 1994.2.14.~5.14.에 개최한 “국·내외 특별전시 포스터” 특별 전시는 광복 이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국·내외 특별 전시용 포스터를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당시 철거하기로 결정한 조선총독부 청사의 가운데 돔 아래 로비에서 개최한 전시이기도 하였다. 포스터 전시는 크게 해외전시와 국내전시로 나누어 구성되었는데, 포스터뿐만 아니라 전시 도록도 전시하여 우리 문화재의 활발한 국내외 전시활동을 잘 보여주었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신입 고고부 학예연구사에게 움직이는 박물관의 기획을 맡겨 전시의 기본을 익히게 하였다. 필자는 박물관에 들어온 지 2년째 되는 1994년에 준비하여 1995년에 “선사인의 돌문화” 전시를 시행하였다. 이 전시는 한 대의 버스에 전시품을 싣고 움직이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작은 전시였다. 움직이는 박물관은 국민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벽지학교나 공단 등을 직접 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차내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에 쓰였던 생활도구의 복제품과 함께 선사인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패널을 전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차내 전시와 더불어 버스 밖에는 시대별로 잘 알려진 유적의 발굴조사 사진을 걸었다. 5일 정도 박물관이 없는 지역 사회에 가서 전시하였으며, 담당 학예연구사인 필자도 출장을 가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였다. 박물관 초년생으로서 박물관 업무를 익히는 중요한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거쳐 박물관인으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한영희 고고부장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기억된다. 석기 유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석기를 제작하는 기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였다. 1996~1997년 2년간은 신입 학예연구사인 은화수 선생이 기획한 “신라 토우”전이 움직이는 박물관 전시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부여 능산리 출토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도 함께 전시하였다.

Ⅵ. 이전 개관 전시

조선총독부청사를 이용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고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경복궁 내의 현 국립고궁박물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임시적인 박물관 청사이지만 거의 10년을 사용하여야 하였기에 상설 전시는 완전히 새로이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옮기기 전에 국립박물관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연히 박물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립박물관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였다.

국립박물관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강연회는 1995.9.12.에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5b). 국립박물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 형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인 강우방 선생님의 ‘국립박물관 50년 약사’는 국립박물관의 과거 발자취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 주제였으며, 충남대학교 교수이신 이강승 선생님은 ‘국립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일본 東京五島美術館 학예고고부장인 竹内順一은 ‘21세기 국립박물관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20세기 전시와 연구 중심의 박물관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립박물관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새로이 21세기 박물관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발표였다. 이전을 앞두고 있던 박물관의 입장에서 박물관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강우방) 현재 박물관의 역할을 정비하고(이강승) 미래 박물관의 방향을 타진하였다(竹内順一)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도 진행되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 박물관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박물관의 부족한 사무 및 자료실 공간의 확보를 위한 별동의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한 것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96a). 새로운 자료실에는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한 창녕 교동고분군 등의 자료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이미 알려진 훈국군영직소지 외에도 그 이전의 건물지 4개소에 대한 자료와 이 유적에서 출토된 대웅, 도기편, 철기, 청동기 등 다수의 유물이 소개되어 있다.

한영희 고고부장이 취임한 199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여 통칭 “중앙청박물관”이라고 불리었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전시실로 활용하였지만, 건물 중앙의 로비에서 시작하여 좌에서 우로 돌면서 전시를 시대 순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고고부의 상설 전시실은 선사실(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실, 고구려실, 백제실, 신라실(통일신라 포함), 낙랑실, 중국실, 이우치와전실 등이었다. 전시실은 구석기부터 통일신라까지 연대순으로 배열하였으나 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를 지향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전시실로서 우리 고대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낙랑실이 있었으며, 우리 기와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우치기증와전실이 주제 전시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대기적인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낙랑과 와전실이 주제로 구성되었다.

‘중앙청박물관’ 개관 이후 1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 결정에 따라 이전하여 1996.12.12.에 현 국립고궁박물관 자리에서 재개관하였다.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임시적인 건물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전시는 이전 박물관을 확대 개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고고부의 상설전시실은 선사실(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실, 고구려실, 백제실, 가야실, 신라실, 통일신라실 등이 있었으며, 공간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랑실과 와전실이 폐지되는 변화를 겪었다. 전체적으로 이전 박물관 전시의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새로운 유물을 추가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부족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구려실 전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천 1호분의 벽화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고분 벽화를 재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탈리아의 프레스코 기법을 빌려 복원을 완료하였다. 복원을 위한 자료는 당시 공개된 장천 1호분 사진과 영상을 구하여 실물 크기로 재현하였다. 현재 중국에 있는 장천 1호분은 도굴되어 그 형상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천 1호분의 벽화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새로이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의 전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록도 새로이 편집되었다. 새로 채용된 박물관 편집디자이너인 박현택 선생이 직접 편집한 새 도록은 참신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고고부 관련 도록은 성낙준 학예연구관이 책임을 지고 내용 편집을 주도하였다. 도록의 체제는 이전 것과 동일하지만(국립중앙박물관 1986), 내용면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질·양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6b). 도록의 순서는 전시 순서에 따

라 선사실, 원삼국실, 고구려실, 백제실, 가야실, 신라실, 통일신라실 등으로 편집하였다. 선사실 항목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를 포함하고 있다. 도록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 전체를 개관하여 ‘한국고고학’개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박물관 전시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시대별로 유적 및 유물 사진과 더불어 한국 고고학 전반에 대한 원고를 실고 있다(김재홍 2016, 2018).

원고 집필은 고고부 학예연구사가 분담하여 집필하고 학예연구관이 교정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영희 고고부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원고 집필 항목은 담당 전시실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선사실은 정성희, 원삼국실과 백제실은 은화수, 고구려실과 가야실은 김재홍, 신라실과 통일신라실은 한봉규가 담당하여 집필하였다.

VII. 맺음말

이 글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한영희 고고부장을 중심으로 고고부가 수행하였던 학술적인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국립박물관 연보, 도록, 보고서 등 각종 자료와 필자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학술논문을 지향하였음에도 사람으로서 한영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감정적인 요소가 스며들었음을 자인한다. 마지막 글을 대신하여 전체 글을 체제를 바꾸어 요약하고자 한다.

이 시절 고고부의 사업은 크게 발굴조사, 자료 정리, 특별전시, 이전 개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사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전 부서원이 “하나의 고고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본문에서 발굴조사자와 도록 집필자를 최대한 밝히려고 하였으나 당시 책자의 표지에는 집필자의 이름이 없거나 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영희 고고부장은 고고부 사업으로 이루어진 원고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고부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예연구사의 원고를 학예연구관이 교정하고 부장인 자신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원고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패널과 도록 원고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 6년간 고고부를 이해하는 수식어는 우리 선사문화의 원류를 해명하는 문제였다. 남한강유역 선사문화조사, 암사동 유적 조사 및 정리, 몽골 유적 조사, 알타이문명전 등은 일관되게 우리 선사문화의 기원과 관련을 가지고 있

었다. 평소 한영희 고고부장의 학문적 소신이 묻어나는 작업이었으며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고부의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서 얻어진 유물인 미공개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를 확대하여 사업으로 정착시켜 지속성을 가지게 하였다. 당시에는 창원 다호리 유적, 부산 동삼동 패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후 일제강점기 자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은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유적을 발굴하고 출토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고고부의 지향점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단지 한영희 고고부장 시절의 고고부만의 화두가 아니라 국립박물관 고고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기도 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지향점을 한영희 고고부장은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국립박물관인, 고고부 맨으로 자리매김하며 학문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고부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김재홍, 1996,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21,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11, 『韓國 古代 農業技術史 研究 ; 鐵製 農具의 考古學』, 고고, p.9.
- _____, 2016, 「박물관 속의 고대사-국립중앙박물관 통사관 전시-」, 『한국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18, 「관람형에서 참여형 전시로 전환하는 박물관」,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 국립중앙박물관, 1986,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 _____, 1994, 『암사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
- _____, 1995a, 『암사동(2)』,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 별책.
- _____, 1995b,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위상』.
- _____, 1996a, 『경복궁 훈국군영직소지(訓局軍營直所址)』,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서 제4책.
- _____, 1996b,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 _____, 1998a, 『여주 연양리 유적』,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9책.
- _____, 1998b, 『동래 낙민동 패총』,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8책.
- _____, 1999a, 『암사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0책.
- _____, 1999b, 『몽골 우글룩칭골 유적』, 해외유적조사보고서 제1책.
- _____, 2000, 『법천리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1책.
- _____, 2012, 『창원 다호리 유적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41책.
- 박영복·소재구·이애령, 1997,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목록집』.
- 오세연·안덕임·金子浩昌, 2002, 『동삼동패총Ⅳ-동물유체』,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4책.
- 윤무병·한영희·정준기·정성희, 1993, 『양산 다방리패총 발굴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5책.
-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 한영희, 1995,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소화.
- 한영희·김길식, 1999, 『백제』.
- 한영희·김재홍, 1996,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목록』.
- 한영희·한봉규, 1995a, 「안성천·아산만일대 선사유적 지표조사」, 『청당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7책.

- _____, 1995b, 「아산 신달리 선사주거지 발굴보고」, 『청당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7책.
- 한영희·함순섭, 1993, 「천안 청당동 4차 발굴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5책.
- 함순섭·김재홍, 1995, 「천안 청당동 I 단계 조사보고」, 『청당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7
- 홍진근·장상훈·안덕임, 2001, 『창원 다호리유적』,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2책.

【Abstract】

Han Younghe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Archaeology Division,
Memories Found in the Visitor's Book

Kim Jae H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Archaeology Division during Han Younghee's tenure as division head from 1993 to 1999. It is based on an examination of materials such as *National Museum of Korea Annual Report* volumes, exhibition catalogues, and excavation reports, as well as the author's own memories.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Archaeology Division at the time consist mainly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finds work, organizing special exhibitions, and preparing for the permanent exhibitions of the new National Museum that was to be newly opened in a couple of years. The single message that was present throughout all of these activities was that all members should strive to become 'One Archaeology Division'. The author was able to establish that, in the case of excavation reports or exhibition catalogues, the names of the authors were entirely absent from the front covers (although they could appear on the inner pages). As Head of the Archaeology Division, Han Younghee believed that texts written in conjunction with the Archaeology Division's activities should not be attributed to a particular author but be regarded as the collective effort of the Archaeology Division. As a result, texts written by assistant and associate curators were edited by curators and examined by the Head. Efforts were made to produce clear and simple panels and catalogues, while keeping true to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

'Identifying the foundations of Korean prehistoric culture' is the catch phrase the best exemplifies the six years of Han Younghee's tenure as Head of the Archaeology Division. Investigations on the prehistoric culture of the Namhan River region, excavation and finds work on the Amsa-dong site, excavations in Mongolia, the Altai Culture exhibition are the activities that were associated with efforts to identify the foundations of Korean prehistoric culture. These activities illustrate the research convictions of the division's Head, which were further explored through research papers.

Adopting a long term point of view, it was proposed the finds work on unpublished material from excavations undertake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following liberation was an important activity of the Archaeology Division. The 'Ancient Sites Investigation and Report'

* Kookmin University

activities of the National Museum came to take place annually, thereby ensuring their substantiality. These activities were first undertaken on the sites of Daho-ri (Changwon) and Dongsam-dong (Busan) and later expanded to include sites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uch activities took plac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Archaeology Division's role was to excavate sites and display artifacts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ignored. This was not merely the goal of the Archaeology Division under Han Younghee's tenure; it was the goal of all Archaeology Divisions and archaeologists affiliated to the National Museum, which Han Younghee had tried to realize through practice. Han Younghee's efforts were focused on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he Archaeology Division though maintaining his own identity as a member of the National Museum and as an archaeology and by protecting his academic integrity.

Key words : Han Younghee, Archaeology Division, Foundation of prehistoric culture,
Amsa-dong site, Neolithic Culture